

Oct.

빛

우리들의 특별한 이야기



라운아띠 스리랑카 8기 기태성 김빛고을 김지현 이재형



Contents

1. Event캘린더

2. 간추린 뉴스

3. 우리가 꼭 소개하고 싶은 사람과 장소

4. 10월의 활동

4-1. CLEANING CAMPAIGN IN LUNAWA & DIGOROLLA

4-2. END POVERTY CAMPAIGN

4-3. 1ST TRIP

5. Special story

1. Event 캘린더

10월

M	T	W	T	F	S	S
1	2	3	4	5	6	7
	Lunawa	Cleaning	campaign	Embassador 만남 날		9월 월별보고서 마무리
8	9	10	11	12	13	14
End Waruni생일	poverty	Campaign 태권도class For Ymembers 시작한 날	준비기간		1st trip	
15	16	17	18	19	20	21
End poverty No.5, 8	End poverty No.8	End poverty No.4	End poverty No.2		End poverty No.1 말따따집에 초대받음☺	말따따와 아마 우리집에서 젤리만드는법 알려주심
22	23	24	25	26	27	28
End poverty No.3 비 많이 와서 집에 홍수남	End poverty No.6 Spiritual meeting	Pathum Namal 아프다...	Parliament 구경 주인집 아마 Birthday party	Wall Painting 시작 말따따가족 기습방문	영화관에서 Step up4 3D로 관람 Namal맨홀에 빠짐...다쳤음	Sumudu, Himali 닥시라 집 방문
29	30	31				
POYA day 를루랄라 K-zone쇼핑 센터 방문!						

2. 간추린 뉴스

- Namal 맨홀에 발 빠짐. 다리 아파서 3일 병가 씬
(10월 29일~31일. 과연 11월도 병가를 쓸 것인가?)
- 콜라겐 노래 하나 더 만듦. 반응 좋음
- YMCA members들을 위한 태권도 class시작
- YMCA 앞에 살던 '루시루'네는
차량의 불편으로 인해
허물어짐.
루시루 집은 옆으로 이사 감
- 스리랑카 한국 대사관 방문
- 2기 때부터 하던 컴포스트 빈 프로젝트는 이제 그만
- Pathum 금연 한 달 돌파!!!
- 3,4기 벽화들이 시멘트공사로 훼손됨. 8기가 복구할 예정



3. 우리가 꼭 소개하고 싶은 사람과 장소



노엘

한국 이름(노일국)을 지어달라고 해서
지어줬지만 알아듣지 못함
한국말로 '좋아'할 때 매우 귀여움
엄청난 춤과 랩을 선보임
노래는 한 음으로 다 소화함
정말 친한 사람에게만 보여줌
(우린 봤음)
처음에는 낯을 많이 가림
가끔 안 웃긴 개그 계속 함
쓰레기(꾸누)가 들어가는 농담을
매우 좋아함
지금은 라온아띠 다섯 번째 멤버

닥시라

한국인이라 계속 땡 침!
(자기는 한국인이라고 싱할라로 말함)
말하는 것의 90프로가 보루보루(땡!)~
생긴 거는 유스클럽 멤버지만
아직 열 일곱살 소녀
매일 심심해하고, 하고 싶은 일이 없음
먹을 거 매일 들고 와서 Y에 나누어줌
꾸미는 거에 관심 있어함
오피스 사람들이 빼둠과 닥시라를
러브라인으로 엮으려고 함
자연스럽게 싱할라를 많이 가르쳐줌
한번 집으로 초대할 계획이 있음.



과일가게

일반 슈퍼보다 훨씬 더 과일이 맛있고,
신선함
여자에게만 친절함
성별에 따라 가격과 양이 확연히 다름
수무두와 히말리가 가면
맛 보라고 계속 과일을 깎아줌
사람들이 우리들 주위에 모임
시장의 인기스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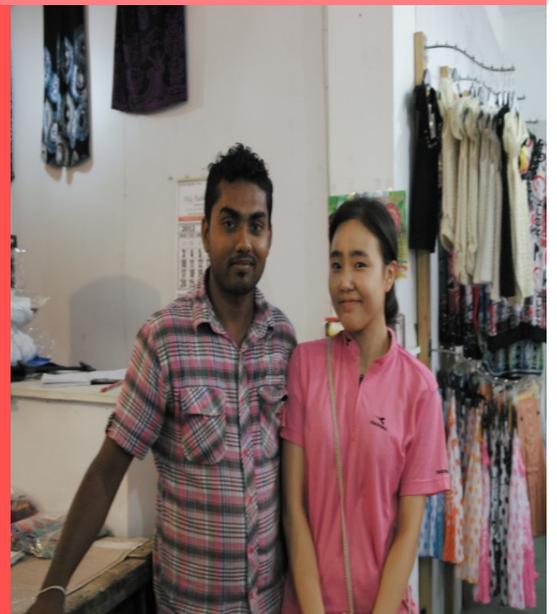
푸드시티

Guard 할머니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심.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우리도 은근 즐김
캐셔 언니 한 명은 한국어를 조금 함
친한 캐셔언니가 있음
여자들에게 푸드시티에서 일하는
남자 3명이 작업감(히히)
에어컨이 나와서 카페처럼
오랫동안 머물기도 함



요크 (여자들만 가는 곳)

가격과 옷을 고려해 제일 괜찮은 곳
거스름돈 없으면 쿨하게
디스카운트 해줌.
처음으로 강남스타일 아는 사람 만남
언니는 부끄러움이 많고 계산을 잘 못함.
옷 계속 추천해줘서 미안함
피팅룸 좁아 터지고 잠기지도 않음





4. 10월의 활동

4-1. cleaning campaign in Lunawa & Digorolla

10월! 두 곳의 우리마을, 깨끗하게 **빛내기** 캠페인!

루나와 마을 ♡

디그롤라 마을 ♡

Step1) 환경교육. 쓰레기를 왜 길거리에 버리면 안될까요?



Step2) 쓰레기 줍기. 쓰레기봉투 나눠줄게~ 우리 마을 깨끗하게 만들자!



Step3) 기념촬영. “꾸누 위시꺼란느에빠!(쓰레기 버리지 말자)” 외치며 찰카



4-1. cleaning campaign in Lunawa & Digorolla

10월! 두 곳의 우리마을, 깨끗하게 **빛내기** 캠페인!

아띠들아, 근데 갑자기 왜?

우선 루나와는요, 현지 NCY에서 진행하는 나무심기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으려는데, 쓰레기가 너무 많아 마땅히 나무심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띠들은 이래선 안되겠다 생각해서 루나와 친구들을 데리고 청소를 시작했답니다!

디고롤라는 이번달 교육주제 “엔드포버티”에 맞춰 환경 보호 목적으로 마을 청소를 했답니다.



나무를 보호할 펜스도 주인집 목공소 폐목자재를 얻어와서 직접 만들었다는



친구들 이름써줄 팻말도



무럭 무럭

자라라!

어떻게 했어?

그냥 무작정 주으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조별로 나눠서 쓰레기 많이 줍는 팀이 이기는 걸로 게임을 했어요. 환경보호 노래도 만들어서 다같이 “꾸누 위시꺼란느 에빠”외치면서 쓰레기를 주으니까 친구들이 힘들어하지 않고 재밌게 쓰레기를 주웠답니다.

하고 나니까 어때?

친구들이 자기동네에 쓰레기가 많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청소하는 우리들만 아니라 보는 동네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근데 루나와에선 문제가 있었어요. 쓰레기를 주워서 모아놓아도 쓰레기 수거 차가 마을로 들어오지 않아서 치워가는 사람이 없대요.

돈을 주어야 쓰레기차가 수거해 간다는데, 그렇게 마을에 쓰레기가 많은 이유가 단지 동네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답니다.

4-2. End poverty Campaign

UN에서 채택된 밀레니엄개발목표(MDGs) 8개의 항목을 모라투와 현지에 맞게 행동으로 옮겨 보았습니다.



1. 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 - 이웃들과 음식 나누기

빈곤 문제를 '나눔'이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
 평소에 생각할 기회가 없었던 가난에 대해 고민했던 시간!
 음식 나누는 문화가 익숙하지 않았는지 놀라는 분도 있었지만..
 루시루네 가족과 오피스 사람들은
 음식을 주자마자 막 달라들어 먹었다!
 후라이팬이 좋은 게 있었으면
 더 얇고 맛있게 할 수 있었을텐데...

활동을 마친 후 의문점 :
 음식이 정말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직접 나누어 주어야 하는 건 아닐까..?

음식 만드는 중에
 히말리가
 고추를 잘못 만져
 밤새도록 고생하기도
 TT.T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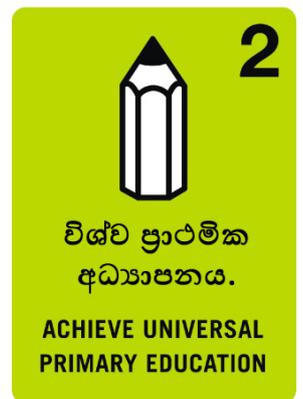


2. 보편적인 초등 교육 달성 - 맹인 학교에 가서 스티비 원더 이야기&음악 나누기

오랜 전통,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시는 모라투와의 맹인 학교.
 도서관, 맹인을 위한 컴퓨터 등 좋은 시설에 놀랐는데.. 우리나라가 배워야 할 점.

맹인 아이들을 만나 본 적이 없어 아이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고개를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랐지만.. 좌우로 흔들며 즐기는 모습도 보고!
 모두가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심!

캠페인이 아니었다면 만나지 못했을 소중한 인연.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다음에 만나기로 한 날엔 아이 한명 한명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다!



스티비 원더 이야기를 통해서
 희망을 가지길 바라며...



4-2. End poverty Campaign



3. 양성 평등 촉진과 여권 신장

- 설문지 작성과 다짐 쓰기 & 성 역할 고정관념 깨기 교육

스리랑카 사람들에게겐 너무 생소했던 설문지 캠페인. 실패했다!! 사람들도 억지로 부탁 들어주는 느낌. 하지만, 공격적이지 않고 조심스럽게 다가서는 데에는 설문지가 최선이였다!

당구장에 오는 사람들은 너무 나이가 많았다... 하지만, 유스클럽 몇 명은 흥미로워했다! 나이와 성별에 따라 반응이 다른 듯!

만약 이 캠페인을 대학교에서 했다면 좋은 반응을 얻지 않았을까..?

반면에, 디고롤라 아이들과 함께한 '성 역할 교육' 반응이 너무 좋았다!

아이들의 호기심 유발, "남자 선생님이 정말 있나요?"



4. 유아 사망률 감소 - 손 씻기 순서 종이 나누어주기

손으로 밥을 먹는 스리랑카에서는 특히 중요한 손씻기!

손을 씻는 것만으로도 질병을 예방하고 유아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장소에서 의외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다! 반갑게 우리를 맞이해주시고 협조해주신 은행, 학교, 시의회 관계자분들! 대성공이었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직접 만났기에 재미있었던 캠페인~

학교에는 교실마다 세면대가 비치되어 있어서 신기했다! 우리나라도 이랬으면..ππ 그리고 좀더 많이 가져갔으면 좋았을 듯...



한번 더, 좀더 많은 곳에 재배포 예정!



4-2. End poverty Campaign



5

මාතෘ සෞඛ්‍යය
දියුණුකිරීම

**IMPROVE MATERNAL
HEALTH**

5. 임산부의 건강 증진

- 콜라켄드(허벌드링크)와 함께 엄마를 위한 시 나누어 주기

캠페인 첫날에 시작했던 활동이라 조금은 우왕좌왕 했던 날
평소 콜라켄드를 준비하던 날과 다른 요일에 병원을 방문하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좋았지만..

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별로 없었던 하루

좋은 반응을 얻었던 ‘엄마들을 위한 시!’

하지만..

정성껏 준비한 허벌드링크는
많이 남기거나 못 드시는 분도 계서
안타까웠다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꽤 찬 캠페인은 아닌 듯한,
아쉬움이 남는 활동



6. HIV, AIDS 그리고 다른 질병들의 퇴치

-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은 없지만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HIV, AIDS에 대해 자료도 찾아보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우리 스스로가 느낄 수 있었던 기회

+한국은 어떨까?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

“함께 기도하기”

- # 라온아띠 커미티 미팅
- # 칠드런스클럽 로시엔네 교회
- # 콜롬보에 있는
정은범 목사님 교회



6

HIV/AIDS හා මැලේරියා
රෝග වලින්
ආරක්ෂා වීම

**COMBAT HIV/AIDS,
MALARIA AND OTHER
DISEASES**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정은범 목사님,**
칠드런스 클럽의 로시엔 아버지님께 감사드립니다.



4-2. End poverty Campaign



7. 환경보전의 지속

- 환경교육, 재활용품 만들기, 신문지를 활용한 만들기수업

그림과 함께 준비한 교육자료.
잘 준비한 자료 덕분에 반응도 좋고 재미있었던 환경교육.

기대 이상의 효과!

먹던 요플레 통을 그냥 버리지 않고
열심히 재활용품을 만든 디고롤라 아이들!
실용적인 물품을 만들었던 우리와 달리
장식품을 많이 만들었던 유스클럽!

디고롤라 아이들,
칠드런스 클럽, 유스 클럽 등...
다양한 연령대와 함께한
많은 프로그램들

각자가
다른 아이디어로
재활용품을
만드는 우리들~



8. 개발을 위한 세계적인 파트너십 구축

- 사람들과 악수하기

하마터면 버릴 뻔했지만, 외국인의 이점을 최대한 살린 기회.
글로벌 파트너십은 국가나 기관을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우리가 외국인이다!’

한국과 스리랑카가 만난 글로벌 파트너십, 편견 없이 악수하기

“당신이 어느 곳에서 왔든지,
우리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즐거운,
모두가 즐거운 캠페인~



End Poverty 캠페인을 마치며...

처음엔 8개의 캠페인을 모두 한다는 것에 부담감도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처음부터 떠오른 것은 아니었다는 거!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며 많은 고민을 하고 회의를 한 덕분에 8개의 캠페인이 탄생할 수 있었다.

우리는 YMCA 뿐만 아니라 마을의 이곳 저곳을 많이 돌아 다니며 캠페인을 진행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한국이 아닌 이곳 스리랑카에서만 할 수 있는, 오직 이 네 명이 모였을 때에만 할 수 있는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다. '빈곤'은 자칫 잘못하면 우울하게 접근할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우리 나름대로 발랄하고 기분 좋은 캠페인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우리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선의, 아니, 최고의 캠페인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한다.

캠페인을 준비하며, 우리가 영어를 싱할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피스 멤버와 코디네이터 노엘을 너무 괴롭혔던 것 같아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 또한 오피스 멤버들과 함께하며 좀 더 많은 것들을 고민할 수 있었고, 싱할라어 또한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였다.

캠페인 중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이렇게 캠페인을 무사히 잘 마치고 네 명이 모여 소감을 나눌 수 있다는 것에 기쁘기도 하고 뿌듯함을 느낀다.

우리가 캠페인을 만들었고, 또 캠페인이 우리를 만든 값진 시간이었다.

4-3. 1st trip

10월 12~14일 우리들의 첫번째 여행!



점심은 뷔페에서 먹고!
코끼리도 타고
코끼리앞에서 다같이 사진도
찍고~

우리의 여행을 함께 해주신
타밀출신 커미티멤버
갓프리 아빠와 함께
(타밀말로도 아빠가 “아빠”래요^^)

4-3. 1st trip

10월 12~14일 우리들의 첫번째 여행!



뜨거운 돌바닥에 발바닥이 타는듯 했던 “아누다라푸라”



이번여행의 핵심인 시기리야!
세계 8대 불가사의라구요~

우리가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사진에 나온
사자 발톱이 번개맞아서 무너졌대요 ㅠㅠ

시기리야 정상에서
야호~!!



4-3. 1st trip

10월 12~14일 우리들의 첫번째 여행!

이번 여행 마지막 코스.
돌아오는 길에 담불라에
있는 템플에서 단체샷~



아띠들 여행 어땠어?

첫 여행 전 엔드포버티캠페인 준비로 바빴던 아띠들의 멘탈은 탈탈탈 털려있었어. 그래도 우여곡절끝에 겨우 준비를 다 마치고 아띠들은 가볍고 흥가분한 마음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었어.

이 여행에선 우리가 평소 모라투와에서만 보아 오던 모습과는 달리 과연 스리랑카가 불교국가구나 하는 것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어. 템플에 들어갈 때마다 신발을 벗고 발바닥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에 폴짝폴짝 뛰기도 했지만 이 더위에 금새 시들어버리는 꽃이 불상앞에 항상 싱싱하게 놓여있는 것을 보면 스리랑카사람들의 깊은 불심을 느끼기도 했지.

그리고 우리의 코디네이터 노엘과는 일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친해지는 시간이 되었고, 여행내내 음식투어하는 즐거움이 들 정도로 엄청 많은 맛있는 음식들도 먹었어. 배고플 새가 전혀 없었을 정도였지.

다 좋았는데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짜여진 스케줄대로만 움직이느라 좀 자유로움이 덜했다는 것? 그래도 매우 만족스러운 여행이었어!^^

5. Special Story

말린드라네 왔다 갔어요. 갔다 왔어요.

첫여행때문에 챙겨주지 못한 말린드라의 아들 '밀린드라'의 생일도 챙겨줄 겸, 엔드포버티 캠페인차 음식도 나눠줄 겸, 그렇게 검사검사 그 동안 너무 얻어만 먹은 것만 같아서 닭요리를 직접 해서 10월 20일 말린드라의 집에 들렀답니다. 우리가 직접 챙겨가니 부담이 덜했다는^^



그렇게 또 말린드라네서 실컷 먹고 놀다보니 운 좋게도 그날 스푸미니네 학교에서 캠프파이어를 한다며 초대받았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아따들이 아니죠^^.



그렇게 친구들의 멋진 캠프파이어 공연을 보는데, 즐기는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공연하는 친구들을 보니 정말 보기 좋더라 구요. 비가 와도 먼저 자리 뜨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다음날, 엄마가 젤리 만드는 걸 가르쳐주겠다고 우리집에 다같이 놀러온 말린드라 가족^^. 이젠 정말 부담없이 지낼 수 있는 친한 사이가 된 것 같아서 좋아요.

5. Special Story

피켓팅 대신에 시작하게 된 캠페인.

환경 개선 문구 붙이며 다니기!!



우리들의 새로운 시도 :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와 같은 딱딱한 문구보다는 조금 더 **재미있고 흥미를 유발하는 문구**를 넣어 길거리 가까운 곳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메고 다니기!
매주 화, 수요일 집에서부터 YMCA까지 오가며 쓰레기 줍기도 함께하기!

왜?? 이걸 하는지 :

전 기수까지는 아침에 물을 줄 때 함께 했던 피켓 들기. 지나가는 차들이 볼 수 있게 들었지만 워낙 빠르게 달리는 차들.. 글자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 또한, 횡단보도 앞에서 하는 캠페인 자체가 위험하다! 또.. 피켓 드는 사람도 힘들다ㅠㅠ



하지만... 10월 한 달 동안 잘 지켜지지 않아 반성중.. 11월엔 날짜 꼭 지켜서 실천하기!

금요일 토크쇼가 열립니다

매주 금요일, 야식이 준비되면 게스트들은 거실로 모여 앉아요 돌아가면서 엠씨를 맡고, 엠씨는 토크 주제를 정해줍니다.

10월에는 ‘자신의 성격’, ‘엄마와 자신의 관계’, ‘국내 추천 여행지’, ‘몸에 있는 상처’에 대해 이야기 했어요. 😊 일과 전혀 관련되지 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만들어졌어요.

**시간이 길어져도 피곤하지 않다는 것이 참 신기해요!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 중의 하나랍니다!**

5. Special Story

우리의 주인집 암마 birthday party

10월 21일은 주인집 암마의 생신입니다. 저희는 25일 목요일에 암마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센스있게 암마가 좋아하는 취향의 옷도 선물로 샀지요 ^^ 함께 저녁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Birthday Party를 즐겼답니다!

한국은 요즘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지 않는데, 이곳엔 이웃들을 초대하고 집에서 같이 밥도 먹고 해요. 정겹고 사람냄새나는 문화가 정말 부러워요.

전까지는 약간~ 형식적인 이웃이란 느낌이 들었는데 이 날 이후로, **REAL 이웃**이 된 것 같아요!!!



이 날,
따따의 춤 실력도
공개되었다죠!

강남스타일 퍼포먼스도
깜짝해서 보여
드렸어요!!!
호응이 너무 좋아서
저희들도 기뻐합니다



10월을 마무리하며...

Sumudu: 시간이 너무 빠르기도 아닌, 느리기도 아닌, 정직하게 흐른다. 그만큼 나는 하루 하루를 후회없이, 알차게 보내고 있다. 벌써 10월이 끝났다고 하지만, 난 11월이 더 기대된다. 10월도 그랬으니까☺ 11월 역시 행복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겠지? 뜨거운 겨울을 보내는 지금, 나는 행복하다♡

Namal: 이곳에서 보고 생각하는 것들이 여기 사람들에게겐 당연한 것들이겠지만 나에게겐 온통 새로운 것들이었다. 10월 한달 동안 만났던 잠깐 스치는 인연, 좋은 일이나 혹시 골치 아픈 일이 있었더라도 이곳이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것들이라 매 순간이 모두 소중했다. 다가오는 시간도 멋진 추억과 좋은 인연으로 채워가고 싶다.

Himali: 장난기도, 웃음도 많아졌다. 행복하면서 행복하다라는 자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 여유가 있으니 아직까지 받은 은혜들도 생각해 보게 된다. 만났던 소중한 사람들, 귀한 경험들, 즐거웠던 시간들, 성장에 필요했던 아픔들 모두. 예상치 못한 위로, 감사, 깨달음, 배움이 있다.

Pathum: 가슴 두근두근거리며 스리랑카에 왔던 9월도 지나고, 많은 할 일에 머리가 지끈지끈거리던 10월도 훌쩍 지나버렸다. 그 시간동안 일하며 새까맣게 그을린 내피부가 마치 훈장처럼 느껴져 약간의 뿌듯함도 느낀다. 또 힘들때면 우는 아이 달래줄때 아프게 만든 것 “때찌때찌”해주듯 파도소리가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바닷가가 근처에 있어서 이곳이 좋다.